

다석 사상으로 찾는 참삶의 길

# 깨달음 공부

다석





## 다석 류영모

1890~1981



동서고금의 종교와 철학에 두루 능통했던 대석학이자 평생 동안 진리를 좇아 구경각(究竟覺)에 이른 우리나라의 큰 사상가. 성경·불경·노자와 장자 공자와 맹자를 두루 탐구 하였으며, 기독교를 줄기로 삼아 이 모든 종교와 사상을 하나로 꿰뚫는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사상을 내세웠다.

1910년 20세에 남강 이승훈의 초빙을 받아 평안북도 정주에서 2년간 오산학교 교사를 지냈다. 그때 함석헌이 졸업반 학생이었다. 1928년부터 종로 YMCA에서 연경반(研經班)모임을 맡아 1963년까지 강의하였다. 51세에 삼각산에서 하늘과 땅과 몸이 하나로 꿰뚫리는 깨달음의 체험을 하였다. 일생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무명이나 배로 지은 거친 옷을 걸치고 고무신을 신고 다녔다.

생전에는 함석헌과 김홍호 같은 20세기 한국 기독교를 이끈 '지도자들의 스승'으로서 알려졌다. 1981년에 세상을 떠난 후에야 독창적인 종교 사상의 체계를 세운 철학자로서 조명 받기 시작했다. 2005년에 '다석학회'가 만들어졌으며, 200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철학대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독창적인 사상가로 소개되었다.

당신은 참으로 하느님을 아시나요?

세상에는 두려운 것이 없어야 한다. 이 세상에는 두려운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참을 꼭 잡은 사람이다.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 곧 하느님만이 두려운 것이 되어야 한다. 참으로 무서워해야 할 것은 무서워해야 한다. 무서워해야 할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세상에 될 것도 되지 않는다. 내 몸은 잡아다가 죽인다 해도 내 영혼이야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 세상에 무서워할 것은 없다.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이 신(神)이 있어서 이루어진다. 신이 내게 건네주는 것이 거룩한 생각이다. 신이 건네주지 않으면 참 생각을 얻을 수 없다.

거룩한 참 생각은 신과의 연락에서 생겨난다.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못된 생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생각하는 곳에 신(神)이 있다고 염재신재(念在神在)라 한다.

그러면 생각이 神인가 나로서는 모른다.

## 살과 죽음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으신지요?

종교의 핵심은 죽음이다. 죽는 연습이 철학이요, 죽음을 없애 하자는 것이 종교다. 죽음의 연습은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다.

단식(斷食), 단색(斷色)이 죽음의 연습이다.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다.

산다는 것은 육체를 먹고 정신이 산다는 것이다.

밥을 먹듯이 육체를 먹는 것이 단식이다.

### 죽음이란

줄 것을 다 주고 꼭 마감을 하고 끝내는 것이다.

줄 것을 다 주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죽음이다.

돈이 있는 사람은 모든 돈을 주고,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주고 그래서 줄 것을 다 주면 끝을 꼭 맺는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은 모을 것을 모으고 알것을 알아서 이웃에 주고 가려고 나왔다.

##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시나요?

좋은 사상은 내 생명을 약동케 한다. 남의 말을 들어도 시원하다. 생각처럼 귀한 것은 없다. 생각해서 믿지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다. 생각 가운데도 거룩한 생각은 향기다. 바람만 통해서도 시원한데 거룩한 향기가 뿜어 나오는 바람이 불어오면 얼마나 시원할까. 시원한 생각, 시원한 말씀이 불어가게 하라.

사람은 누구나 빈 맘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空心觀世). 맘을 비워서 세상을 보면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세상을 바로 보는 사람에게는 복된 소리가 들려야 한다. 어느 의미로 보아서는 정말 남의 선생 노릇을 하는 지도자는 선지(先知)의 성격을 꼭 가져야 한다고 보겠다. 선지(先知)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없다. 그저 하늘이 맡겨주신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이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도와줄 수가 없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

생각은 사랑이 있을 때 피어나는 하나의 정신의 불꽃이다. 사랑의 정신으로 꽃피울 때 정말 불꽃이 되어 살아나오는 것이 생각이다.

나란 바로 정신이다. 정신이 나라는 것이 생각이다. 정신이 깨어나고 정신이 불이 붙어야 한다. 정신은 저저 깨어나지 않는다. 가난과 고초를 겪은 끝에 정신이 깨어난다.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이 문제다. 정신이 통일 되어야 생각의 불이 붙는다. 분열된 정신은 연기만 난다.

내가 사는 데를 여기라고 한다. 그제 저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가 내가 사는 것이다. 사는 때가 이제이다. 사는 때가 이제, 사는 곳이 여기이다. 이어 이어 내려와서 여기가 된 것이다.

하느님이 나를 이어주고 나는 하느님과 이어지고 다시 이어 이어 여기 온 것이 나라는 것을 생각한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도 이제 나왔고 운명할 때도 이제 숨을 거둔다고 한다.

당신은 참 진리를 찾아 본 적이 있나요?

이제 여기의 이 나라는 존재는 거짓된 것이다. 참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것도 거짓된 것이다. 하잘 것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껏 찾아야 할 것은 오직 '참'이다.

'참'이란 생전을 두고 찾아야 한다.

일생뿐 아니라 대를 물려가면서 찾아야 한다.

인류가 그칠 때까지 찾아야 한다.

전 인류가 다 힘을 쏟아서 마침내 알아내야 할 것은 '참' 하나일 것이다.

진리 하나뿐이다. 그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참'이란 절대자의 뜻을 이루겠다고 나서는데서 가까워진다.

'참'은 하느님의 뜻이요, 길이요, 속알이다.

진리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내 뜻 없이(無意) 보는 것이 바로 보는(正見) 것이다.

내 뜻 없이 볼 때 진리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 성의(誠意)다.

진리의 뜻을 이루는 것을 진성(盡性)이라고도 한다.

이는 내 뜻이 없어지고(無意) 내 고집이 없어지고(無固),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無我), 반드시(無必) 세계다.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세계다.

이를 존심양성(存心養性)이라 한다.

## “두르려라,

찾으라는 것은 떼라도 쓰면서 자꾸 조르면 주신다는 말이다.  
종교를 잘 믿으려면 기도를 잘해야 한다.

그런데 나는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하느님에게로 영원한 생명만 구해야 한다.

기도는 혼자서 해야 한다.

제 기도는 제가 해야 한다.

여럿이 모여 할 때는 암만해도 하는 척하게 된다.

거짓으로 하는 기도는 미워해야 한다.

…… 절대로 큰 것(하느님)을 우리는 못 본다.

아주 더할 수 없이 온전히 큰 것을 무(無)라 한다.

나는 없(無)을 믿는다. 모르니까 믿는다.

있는 것은 아니까 안 믿는다.

기도할 때 하느님이 여기 오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 품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안 들어가면 들어가려  
힘써야 한다.

갈 때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잊고 가야 한다.”

- 다석 류영모 -

### [다석 사상 모임 안내]

장 소 : 성천 문화재단 강의실

(여의도 63빌딩 옆 라이프 오피스텔 1308호)

일 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1:00

연락처 : 010-3332-1233 (최성무)

010-6399-8455 (김성언)